

남성 호칭 접미사 ‘-센’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

-섬진강 유역 방언을 중심으로-

강희숙**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센’형 호칭의 특징
- III. 섬진강 유역의 ‘-센’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하여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이 교차하여 두 방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전이 지역에 속하는 섬진강 유역의 방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남성 호칭 접미사 ‘-센’의 지리적 분포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센’은 서남방언, 특히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0대 이상의 노년층 세대에서 그 잔영이 남아 있는 호칭 형태이다.

문제는 ‘-센’이 전남방언에서만 고립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인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센’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방언

* 이 논문은 지난 6월 23일~24일 양일간에 걸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토론을 맡아 수고해 준 계명대 오새내 선생님과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준 학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샌’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전통적 성격의 호칭들이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호칭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섬진강 유역에서 ‘-샌’형 호칭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사용의 모습 또한 한국어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전이 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샌’, 섬진강 유역, 호칭어, 전남방언, 경남방언, 전이지대

I. 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언지리학에서 말하는 전이 지역(transitional area) 혹은 완충 지대(buffer zone)¹⁾라 함은 둘 이상의 개신형이 침투하는 지역으로서 상이한 규칙들이 공존하는 지대를 말한다(방언연구회 2001: 295).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전이 지역으로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한국어 방언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진강 유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하여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이 교차하여 두 방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전이 지역에 속하는 섬진강 유역의 방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의 지리적 분포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전통적 성격의 호칭들이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호칭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섬진강 유역에서 ‘-샌’형 호칭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사용의 모습 또한 한국어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전이 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 Antilla(1972: 298) 참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자료 조사는 예비 조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샌’형 호칭의 질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지점으로는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의 전이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판단되는 경남 함양군 일대로, 왕한석(2000)의 조사 지점인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를 비롯하여 함양읍, 안의면 등지를 선정하였다. 현지 조사는 해당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 호칭 사용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한 뒤, 노년층 화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에서 ‘-샌’형 호칭이나 태호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샌’형 호칭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지곡면 개평리나 안의면 동촌리의 경우처럼 전통사회에서 일정한 성씨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온 집성촌 또는 반촌의 경우, 종지명제(從地名制, geononymy) 호칭²⁾에 해당하는 태호(宅號)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민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태호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안적 호칭에 해당하는 종자명제(從子名制, teknonymy) 호칭이 일반화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차 예비조사의 결과 함양군 일대에서는 ‘-샌’형 호칭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조사에 해당하는 2차 자료 조사를 별도의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한 달간이며, 조사 지점은 섬진강을 경계로 한 하동군 악양면과 구례군 간전면, 광양시 다압면 등지이다.³⁾ 조사 지점을 지도로 나타내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지명제 호칭이란 혼인한 여성에 대한 전통사회 호칭 가운데 하나로서 ‘친정 지명 + 태(宅)’의 형태로 호칭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체적인 조사 지점은 다음과 같다.

하동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

부터 생활권을 같이해 옴으로써 방언 간의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광양방언이 하동방언과 더불어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전이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은 서상준(1983)에서 가정한 전이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이 지역의 언어적 특질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II. ‘-샌’형 호칭의 특징

‘-샌’은 서남방언, 특히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0대 이상의 노년층 세대에서 그 잔영이 남아 있는 호칭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 혹은 그에 대한 분석이 그 실제 증거이다.

(1) ㄱ. “어이! 박샌!”

누군가가 저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온다.

“소식 들었는가?”

“.....”

박샌이라 불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조차 없이 어느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만 있다.

“집샌이 이사간다네!”

“뭐시여?”

그제서야 박샌은 벌떡 일어선다.

ㄴ. 박샌 즉 여기서 ‘샌’은 샌님 또는 생원을 뜻하는 말로서 전라도 지방

에서 남자어른들의 택호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보통 성씨 뒤에 자연스럽게 붙인다.

위의 사례는 ‘문구마을’이라는 아이디를 지닌 블로거가 쓴 단편소설 <저수지>에서 가져온 것이다.⁴⁾ 전남 순천시 별량면 출신의 이 블로거는 자신의 고향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박썬’, ‘짐썬(김썬)’ 등의 호칭(1ㄱ)과 함께, ‘-썬’에 대한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다(1ㄴ). “‘썬’은 썬님 또는 생원을 뜻하는 말로서 전라도 지방에서 남자어른들의 택호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1ㄱ)에 제시된 ‘박썬’, ‘짐썬’ 등의 호칭은 ‘성(姓) + -썬’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썬’형 호칭은 이전에는 단순히 이름으로 불리던 남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끼리 격의 없이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썬’형 호칭의 존재 및 그 쓰임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로는 조숙정(1997), 왕한석(2000), 강희숙(2006, 2008)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연구가 인류학적 관점에서 조사 지점의 토박이 화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호칭어들 가운데 하나로 ‘-썬’형 호칭을 보고하고 있는 것인 데 반하여, 강희숙(2006, 2008)은 비교적 본격적으로 ‘-썬’형 호칭의 기원이나 용법, 이를 바탕으로 한 전남방언의 분화 가능성 등을 다룬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썬’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강희숙(2008)에서는 ‘-썬’의 기원에 대한 분석을

4) 이 작품은 2017년 4월 6일에 시작하여 4월 24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이다. 주소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sionmkp&logNo=220991360703>.

토대로 ‘-샌’형 호칭의 하위 유형과 용법 및 방언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의미와 사회적 분포상의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샌’형 호칭의 윤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숙정(1997), 왕한석(2000) 등의 기존 연구들에서 ‘-샌’의 기원을 ‘샌님’에서 찾은 것과는 달리,⁵⁾ 이 연구에서는 ‘새원~새완’과 같은 ‘생원’⁶⁾의 방언형에 기초한 문법화(grammaticalization)⁷⁾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정은 전남방언에서 ‘샌님’이 독자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샌’은 ‘새원~새완’의 축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5) 조숙정(1997: 42)에서는 ‘-샌’은 지위용어 ‘샌님(생원님)’에서 온 것으로 ‘샌님’을 그대로 사용하면 과거 상민이었던 사람을 너무 올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존칭 접미사 ‘-님’을 생략하고 LN에 ‘샌’만을 붙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왕한석(2000: 68)에서는 ‘성+샌’의 남성 호칭은 이전의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상민 출신의 남성을 부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샌님’을 그대로 사용하면 과거 상민이었던 사람을 너무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존칭 접미사 ‘-님’을 생략하고 ‘샌’만을 붙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원’이란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종의 직함 호칭어이다.

7) 이와 같은 가정은 Heine, Claudi & Hünnemeyer(1991: 15)에서 제시된 문법화의 연대기적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샌’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강희숙 2008: 38 참조).

- 기능적 과정: 확대(expansion)
- 형태 통사적 과정: 접사화(affixation)
- 음소적 과정: 탈락

8) 경우에 따라서는 ‘-샌’이 ‘-생>-샌’의 변화를 거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언어적 전통에서 ‘생원’의 준말로 ‘생’이 쓰인 것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오신화』의 주인공은 ‘양생, 이생, 홍생, 한생, 박생’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호칭 형태의 출현 시기가 매우 오래 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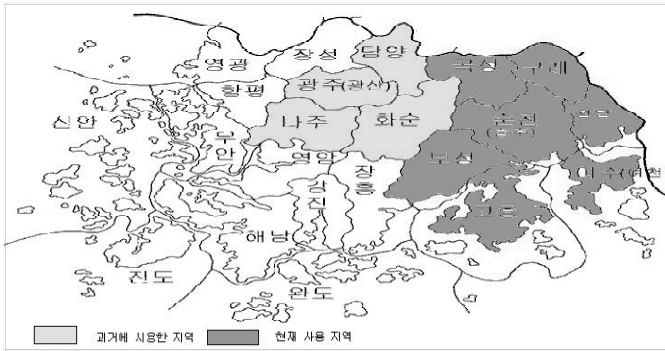
둘째, ‘-샌’형 호칭은 ‘성+샌’의 유형 외에도 ‘이름+성+샌’, ‘부인의 출신지명+성+샌’, ‘이전 거주지명+성+샌’, ‘본인의 직업+성+샌’, ‘별명+성+샌’ 등 상당히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으며, 해당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 특히 반촌인가 민촌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용법에 차이를 보인다.⁹⁾ 또한, ‘-샌’형 호칭들 간에는 사회적 위신의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한 위계를 드러낸다. ‘직업/ 별명+성+샌 < 성+샌 < 이름+성+샌 < 지명+성+샌’ 등의 위계가 그것이다.

셋째, ‘-샌’형 호칭은 여성 호칭 접미사 ‘-떡’과 결합함으로써 전형적인 ‘종지명제’(geononymy) 태호가 아닌 ‘종부호칭제’(從夫呼稱制, 남편의 호칭을 따르는 것) 태호를 형성하게 된 결과, 전남방언이 동서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샌’형 호칭은 오늘날 중년층 이상의 비교적 나이 많은 연령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되, 반촌에서보다는 민촌에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대별로 볼 때 노년층보다는 중년층에게서 더 낮은 비율로 ‘-샌’형 호칭이 사용됨으로써 일종의 진행 중인 언어 변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으로 종자명제 호칭과 의사친족 호칭이 ‘-샌’형 호칭을 대체하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샌’형 호칭의 특징들 외에 강희숙(2008)에서 확인된 중요한 방언지리학적 사실은 전남방언의 경우 ‘-샌’형 호칭이 대부분 동부 지역어에만 잔존하고 있음으로써 서부 지역어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2]이다.

9) 가령 반촌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지만, 일반 민촌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령 단계(age grading)에 따른 대우 수준의 차이가 대상자의 ‘이름’을 대신한 ‘성+샌’의 구조를 지닌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림 5] ‘-샌’형 호칭의 지리적 분포(강희숙 2008: 45)

위 그림에 따르면, ‘-샌’형 호칭은 전남의 동부 지역과 일부 북서부 지역, 곧 광주를 비롯한 담양, 화순, 나주 등지에서 출현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직접적인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동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언어적 사실이 전남의 방언 분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샌’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인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섬진강 유역의 세 조사 지점에서 사용되는 ‘-샌’형 호칭의 지리적 분포와 함께 그러한 호칭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전이 지역 방언들의 영향 관계 및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섬진강 유역의 ‘-샌’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방언지리학에서는 언어 개신의 양상에 따라 지역 방언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왔다. 핵 방언 지역(核方言

地域, core dialect)과 잔재 지역(殘在地域, relic area), 전이 지역(轉移地域, transitional area)이 바로 그것이다(Alva L. Davis 1950: 264).¹⁰⁾

언어 개신의 양상에 따른 지역 방언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전이 지역은 두 방언이 접촉하는 지대, 곧 두 방언이 갈리는 지대에서 어느 한쪽 방언의 특징만이 아니라 다른 한쪽의 요소도 일부 지니는 중간자적 지대 혹은 완충지대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성격의 전이 지역으로 주목받아 온 한국어 방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진강 유역 방언이다.

섬진강 유역 방언이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가정 아래 이 지역의 방언 현상을 기술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하나는 음운과 어휘, 문법 등 다양한 문법 층위에 걸친 분석을 통한 등어 지대의 설정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음운론의 차원에서 음운 목록을 대비 또는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서주열(1980), 위평량(2000, 2005)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김재문(1984), 김봉국(2011)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서주열(1980), 위평량(2000, 2005)을 들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들 연구의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주열(1980)은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접촉 지대의 방언을 음운과 어휘, 통사 차원에서 고찰한 결과 전남의 광양군과 구례군, 여천군, 경남의 하동군과 남해군을 등어 지대(等語地帶)로 설정하고, 이 지대의 음운 체계에서 전남의 서부나 경남의 동부와는 달리 /ㄱ/와 /ㄴ/가 변별되며, 운소적 특징으로서 경남의 성조와 전남의 음장이 동시에 이해되고 사용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주열(1980)에서는 섬진강 유역의 전이

10) 방언연구회(2001: 295)에서 재인용.

지역에서 두 가지 음운론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¹¹⁾

이어서 위평량(2000)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 22개 군(시)·223개 면(읍) 단위의 방언 분포를 109장의 지도로 제시한 후, 각 어휘별 분포 및 변천 과정 등의 특징을 음운, 문법 형태, 어휘별로 살펴보고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제반 방언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등어 지대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두 방언의 등어 지대, 곧 전이 지역을 공유 빈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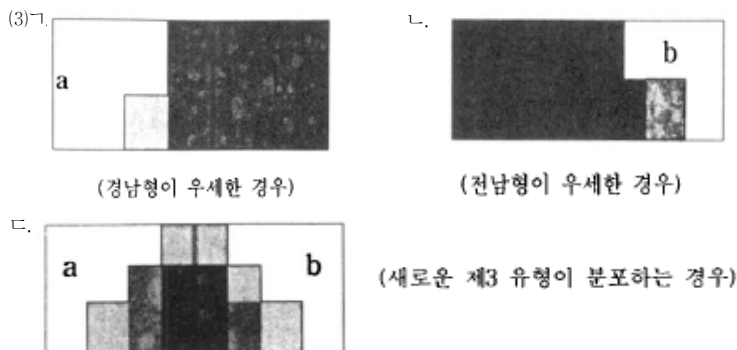
- (2) ㄱ. 70%~90% 공유 지대: 접경지 좌우의 8개 군(전남의 구례·광양·여수와 순천, 고흥 일부-경남의 하동 남해와 사천 일부)
- ㄴ. 30~69% 공유 지대: 전남의 순천·고흥·곡성·보성 일부-경남의 고성·통영·거제와 함양·산청·진주·사천의 일부

이와 같은 등어 지대의 유형을 본 연구의 조사 지점과 관련지어 보면,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은 (2ㄱ)의 유형, 곧 공유 빈도수가 70~90%인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지점인 전남의 구례와 광양, 경남의 하동 지역어에 전이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¹²⁾ 그 가운데 하나로 ‘-센’의 공존 현상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위평량(2005)에서는 위평량(2000)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과 경남의 접경 지역의 방언 분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1) 서주열(1980: 143~144)에서는 등어 지대 방언의 이와 같은 특징을 전남방언과 경남 방언의 bilingualism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12) 인접하는 두 개의 방언이 접촉하는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이 지역에서는 두 방언의 규칙인 <규칙-1>과 <규칙-2>가 공존하거나 이 두 규칙이 통합된 <규칙-3>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포는 전이 지역의 경우, 성격이 다른 두 지역 방언이 만나서 세력이 강한 한쪽이 상대방 어형을 밀어내고 멀리 침투하기도 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는 자신의 영역에서 대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 어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두 어형이 뒤엉키어 새로운 변이형을 생성해 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진강 지역은 (3ㄱ)처럼 경남형이 우세한 경우, (3ㄴ)처럼 전남형이 우세한 경우, (3ㄷ)처럼 새로운 제3 유형이 분포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¹³⁾

(3)에서 제시된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에서의 방언 접촉 유형은 일반적인 전이 지역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방언연구회(2001: 296)에 따르면, 전이 지역에서 두 방언 요소의 접촉 현상은 두 요소가 병존하는 병존 방언의 유형과 두 요소가 융합하여 제3의 요소로 나타나는 융합 방언 유형, 병존 방언과 융합 방

13) 여기에서 말하는 제3 유형이란 경남형과 전남형이 아닌 제3의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중앙어의 ‘계:’에 대해 경남형으로는 ‘계, 끼’가, 전남형으로는 ‘기:’가 사용되는 데 반해, 섬진강 유역에서는 중앙어와 동일한 ‘계:’가 사용되고 있다(위평량 2005: 35 참조).

언의 단순한 결합으로 단일한 방언에서 병존적 요소와 융합적 요소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 방언(scrambled lects) 등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3)과 같은 방언 접촉 유형은 섬진강 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비교적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은 (3)의 유형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일까? 왕한석(2000)에 따르면,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인 1980년대 초에¹⁴⁾ 조사 지점인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서 ‘-샌’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남방언이 아닌 경남방언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 두 지역에서 각각 발생하는 다원적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샌’형 호칭이라는 새로운 언어 개신파를 방사한 지역인 핵 방언 지역, 곧 초점 지역(focal area)은 전남의 동부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강희숙(2008: 45)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남방언의 경우, ‘-샌’형 호칭어가 동부 지역은 물론 일부 북서부 방언에서까지 분포하는 등 그 분포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림 2]에 제시한 ‘-샌’형 호칭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방언에서는 서부의 몇몇 지역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샌’이 사용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방언의 경우에는 왕한석(2000)에서 조사된 지점을 제외한다면, 하동 지역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전남방언의 토박이 화자들은 물론 타 지역 출신의 화자들이 ‘-샌’형 호칭어를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샌’형 호칭어가 다름 아닌 전남의 토박이말이라는 인식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의 경우를 포

14) 왕한석(2000)의 현지 조사 기간은 1982년 1월부터 1983년 2월까지 약 13개월이다.

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 증거이다.

- (4) ㄱ. 내가 어렸을 적 우리 마을(순천 쌍암)에 돈이 좀 있고 목소리 좀 크면 다 첩이 있었다. 임동집센, 월계집센, 도목쟁이집센,¹⁵⁾ 선학집센.

<블로그 <http://blog.daum.net/kys288960/5107>>

- ㄴ. 왜 순천이 맛의 고장이라 불리는지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연향동의 이센집은 맛집의 전형을 보여준다. 호남의 시골에서는 이씨, 김씨, 박씨를 '이센, 김센, 박센'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나 보다.

<블로그 <http://korea6805.blog.me/220884523820>>

- ㄷ. 하동에 택시기사님들도 매화마을(광양) 지막에 박센집이 가지고 하면 매화마을의 우리 처갓집 앞에까지 와서 경적을 울려준답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css3450/70184587629>>

블로그에 실린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전남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전남의 순천(4ㄱ, ㄴ)이나 광양(4ㄷ) 등지에서 ‘-센’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호칭이 호남 또는 전남의 독특한 언어 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 가운데 (4ㄴ)의 ‘임동집센, 월계집센, 도목쟁이집센, 선학집센’은 ‘지명 + 성(姓) +-센’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혼인한 여성의 출신지명을 구성 요소로 하는 택호(宅號)의 일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강희숙(2008: 41)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호칭은 일종의 혼성형(blending)으로서 여성의 호칭과 남성의 호칭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전남방언 출신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비교

15) ‘도목쟁이’는 전남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도목마을의 옛 지명임.

적 자주 ‘-센’형 호칭어가 노출되는 데 반하여 경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5) ㄱ. “오, 남센, 그 집 머시오?”

경찰 하나가 턱짓을 했다. -조정래, 『태백산맥』에서

ㄴ. 그렇게 농사지어서 빗만 남긴 집과 논과 밭을 새마을이밭소와 새마을구판장과 새마을도정공장 주인인 박센이 샀다.

-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에서

여기에서 보듯이 전남 순천과 곡성 태생의 작가 조정래와 공선옥의 작품에는 ‘-센’형 호칭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선옥의 또 다른 작품에서는 ‘-센’형도 사용되고 있어, /ㄱ/, ㅈ/의 모음 합류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방언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6) “이센, 내일 뭘 일 없소?”

“왜?”

“저 아래 진깍이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인데 담이 무너져서 났 하루 가서 봐줘야 쓰겠는디.”

“그러.”

“어이 질센, 나하고 이 양반하고 한 두어 사람 더 불러서 났 자네 집으로 내려감세.”

—공선옥, 『타관 사람』에서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근거는 ‘-센’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발생하여 방언 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센’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7) 그때 **박센**(신랑)이 스물아답이였는디 **박센**이 밀양 박가라.

여기에서 사용된 ‘박센’은 73세의 여성 화자가 현재는 고인이 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부르는 데 사용한 호칭이다. 이는 2016년 경남 하동의 ‘평사리 문학관’ 주관하에 간행된 월간 《평사리》 10월호에 실려 있는 구술 자료의 일부로, (6)에서와 동일한 형태의 ‘-센’이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현지조사 지점 가운데 하나인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에서 이루어진 면담 결과, 이 마을에서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센’형 호칭이 존재하며, 이는 인근의 구례와 광양 지역에서의 호칭 유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이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8) ㄱ. 성+-센: 강센, 박센

ㄴ. 이름(이) +성+-센: 훈길이 강센, 영수 강센, 종안이 박센

ㄷ. 부인의 출신지 +성+-센: 주암박센, 의신이센, 화계이센, 하신동이센

위의 사례들은 모두 ‘-센’을 구성 요소로 하여 쓰이는 남성에 대한 호칭이다. 이는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부르는 호칭(address form)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를 간접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칭(reference form)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8ㄴ, ㄷ)의 ‘이름(이)’이나 ‘부인의 출신지’는 일종의 구별 표지이다. 즉, (8ㄱ)의 ‘성+-센’ 형식만으로는 대상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름이나

부인의 출신지를 결합하여 구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한편 (8)에서와 같은 ‘-센’형 호칭은 여성 호칭을 만드는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박센뻘이(~뻘이)’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호칭은 여성의 출신지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다음 예들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택호, 곧 ‘출신지명+뻘이(~뻘이)’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¹⁷⁾

- (9) ㄱ. 산태동뻘이, 악양뻘이, 절골뻘이, 하신동뻘이
 ㄴ. 한동뻘이, 본동뻘이

위의 예 가운데 (9ㄱ)의 사례들은 각각 ‘산태동, 악양, 절골, 하신동’ 등지가 친정인 여성에 대한 호칭이다.¹⁸⁾ (9ㄴ)의 ‘한동’이나 ‘본동’은 외지에서 혼입(婚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마을에서 혼인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이한 언어적 사실은 본고의 조사 지점들에서는 (8ㄷ)과 같은 유형의

16) 강희숙(2008: 40)에는 좀더 다양한 ‘-센’형 호칭이 출현한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8)과 같은 유형의 축소가 전이 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17) 왕한석(1989: 28)에서는 택호의 일차적인 지시적 기능이 해당 ‘집이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보다는 결혼한 여성을 이름 대신 부르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택호의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만 하더라도 택호를 “집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처가나 본인의 고향 이름 따위를 붙여서 그 집을 부르는 말.”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 언어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18) 광양이나 구례와 같은 전남방언에서는 ‘출신지명+-뻘’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호칭, 곧 여성의 출신지명을 남성 호칭의 구성 요소로 삼는 또 다른 형태인 ‘출신지명 + 양반’형의 호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지명제 호칭인 택호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신지명 + -댁(-떡/-떡이/-떡이)’형을,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출신지명 + -양반’형을 의미한다.¹⁹⁾ 따라서 (9)와 같은 유형의 택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신지명 + 양반’형의 택호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이 지역의 매우 독특한 언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Ⅲ.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을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이 교차하여 두 방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전이 지역에 속하는 섬진강 유역의 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샌’의 지리적 분포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 관심을 두었다. ‘-샌’은 서남방언, 특히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남성에 대한 호칭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0대 이상의 노년층 세대에서 그 잔영이 남아 있는 호칭 유형이다.

문제는 ‘-샌’이 전남방언에서만 독립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인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샌’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발생하여 방언 접촉에 의해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샌’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 ‘여성의 출신지명 + -양반’형의 택호는 본래 전통적인 반촌에서 혼인을 통해 어른이 된 남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한국어 호칭어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호칭의 사용은 사회 구조나 특성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한 수많은 변화들, 전통적 신분사회의 붕괴,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해체, 교육의 보편화, 매스컴의 발달 등과 같은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센’형 호칭의 존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섬진강 유역의 방언들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센’형 호칭은 오늘날 70대 이상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도 많은 대안적 호칭들에 의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의 전이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사용의 모습 또한 한국어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전이 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숙, 「전남방언 태호의 변이와 변화」, 『사회언어학』14-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6, pp.27-48.
- 강희숙, 「전남방언 남성 호칭 접미사 ‘-센’의 용법과 방언 분화」, 『사회언어학』16-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8, pp.29-49.
- 기세관, 「섬진강 유역권의 방언」, 『지역개발연구』2, 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 1992, pp.23-40.
-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31, 동남어문학회, 2011, pp.5-25.
- 김재문, 「경남방언과 전남방언과의 방언 경계선상의 음운 고찰」, 『진주문화』5, 진주교대, 1984, pp.23-46.
- 방언연구회, 『방언학사전』, 태학사, 2001.
- 서상준, 「광양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13, 호남문화연구소, 1983, pp.115-170.
- 서주열, 「전남-경남 등어지대 연구」, 석사학위논문(명지대학교 대학원), 1980.
- 위평량,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대학원), 2000.
- 위평량, 「섬진강 유역 방언의 성격」,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pp.27-47.
- 왕한석, 「태호와 종자명 호칭」,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pp.27-47.
- 왕한석, 「언어 생활의 특성과 변화」, 『사회언어학』 8-1, 한국사회언어학회, 2000, pp.59-86.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 조숙정, 「비친척관계에서의 호칭어의 구조와 사용 방식」, 석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1997.
- Anttila, R.,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Mcmillan Publishing Co, 1972.
- Heine, Claudi & Hünnemeyer, *Grammaticaliza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Geographic Distribution and the Usage of the Suffix
Form ‘-sen’ to Address Males in the Jeonnam Dialects

Kang, Hui-suk

In relation to Korean dialect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geographic distribution and the usage of the suffix form ‘-sen’ to address males, one of the many characteristics of dialects around the Seomjingang river area, a transitional area where two dialects—Jeonnam and Gyeongnam—cross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sen’ has been frequently used as a suffix to address males in southwestern dialects, especially in eastern regional dialects in the Jeonnam area, and this is still the case among elderly people in their 70s and older.

A question arises from the fact that ‘-sen’ appears not only in the Jeonnam dialect but also commonly in the Seomjingang river area, which is the point of inquiry in this study. It appears that the suffix ‘-sen’ occurred beginning in eastern regional dialects in the Jeonnam area and spread to some Gyeongnam regions such as Hadong and Hamyang as the result of dialect contact. It is confirmed that ‘-sen’ settl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regional dialect of the transitional Seomjingang river basin a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at whereas other traditional address forms are disappearing and being substituted with new ones, the suffix ‘-sen’ is still commonly being used in the Seomjingang river area, and this pattern of language usage should be considered a characteristic of Korean dialects in transitional areas.

Key Word: ‘-sen’, Seomjingang river area, address forms, Jeonnam dialects, Gyeongnam dialects, transitional area

강희숙

소속: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hskang@chosun.ac.kr

이 논문은 2017년 8월 13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